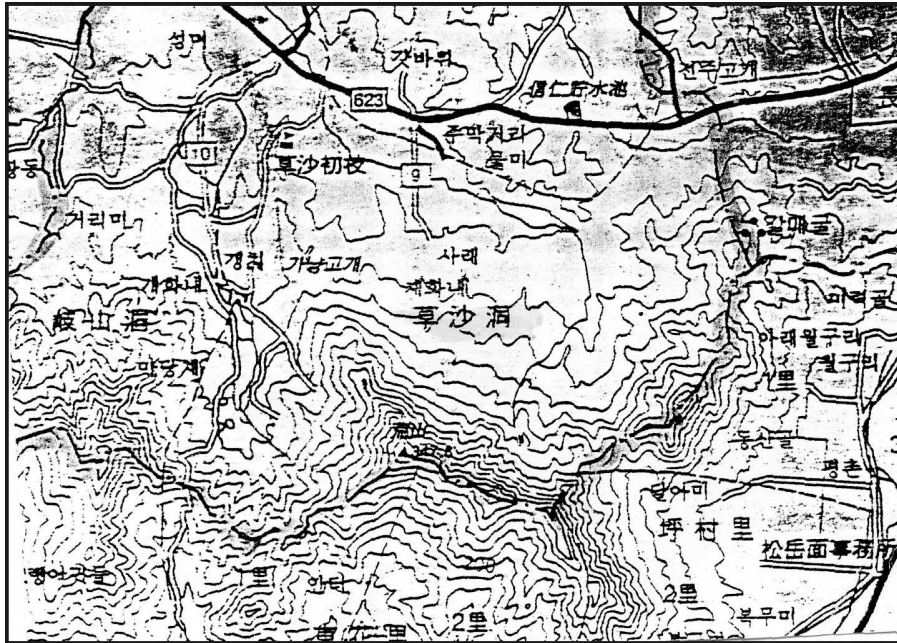


(4) 초사동 《 초사 1통 - 초사 2통 》

<초사동 전체 위치도>



<조사당시 초사동 전경 사진>



- 명칭유래

초사1통은 초사동에서 송악면으로 넘어가는 갯티 고개가 있어 갯티 또는 지형이 삼태기처럼 아늑하고 꽃이 일찍 핀다 하여 개화내, 개우내라고도 한다. 2통은 싸래기논이 있어 사래 또는 초사라고 하며 초사초등학교가 있는 마을이다.

－ 통별 인구분포

초사동의 인구는 총 521명으로 남자가 176명, 여자가 245명이다.

아래의 표로 통별 인구분포를 알아보자.

구 분 마 을 명	계	남자	여자
초사1통(깁티,개우내)	247명	132명	115명
초사2통(사래)	274명	144명	130명

－ 통별 가구수

가구 수는 173가구로 농가가 111가구, 비농가가 62가구이다.

구 분 마 을 명	계	농가	비농가
초사1통(깁티,개우내)	86 가구	55 가구	31 가구
초사2통(사래)	87 가구	56 가구	31 가구

－ 통별 생업

구 분 마 을 명	계	농업	기타
초사1통(깁티,개우내)	100%	64%	36%
초사2통(사래)	100%	64%	36%

－ 통별 농경지

구 분 마 을 명	계	논	밭
초사1통(깁티,개우내)	81ha	48ha	33ha
초사2통(사래)	108ha	54ha	54ha

－ 통별 농기계

구 분 마 을 명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관리기	예취기	콤바인	건조기
--------------	-----	-----	-----	-----	-----	-----	-----

초사1통(갱티,개우내)	25대	12대	12대	5대	20대	5대	3대
초사2통(사래)	30대	3대	3대	10대	20대	1대	3대

－ 통별 문화시설

구 분 마 을 명	마회관	엠프	방송시설	마을문고	사물놀이악기
초사1통(갱티,개우내)	1개소	1조	1조	－	1조
초사2통(사래)	1개소	1조	1조	－	1조

－ 통별 고령자

초사 1통의 최고령자는 조돈숙 할머니(87세)이며, 초사 2통은 이필규 할아버지(84세)이다.

－ 통별 호당 소득

초사 1통 연평균은 600만원이고, 초사 2통 연평균은 840만원이다

－ 통별 사진

<초사 1통>



황산 깊숙이 자리한 마을

동쪽 : 초사 2통 · 서 : 기산동 · 북 : 신정호 저수지

<초사 2통>



동 : 장존동 · 서 : 기산동 · 남 : 황산 · 북 : 신인리(물미)

－ 지명

·개화 - 내(開花 -) [개화천, 개흥히] 【마을】 갯티 옆에 있는 마을. 지형이 삼태미 처럼 아늑하고 꽃이 일찍 폼.

·개화 - 천(開花川) 【마을】 개화내.

·개흥 - 리(開興里) 【마을】 개화내.

·개흥 - 티(開興 -) 【마을】 갯티¹.

·갯 - 티¹ [개흥티, 흥기리] 【마을】 갯티 고개 밑에 있는 마을.

·갯 - 티² 【고개】 사래 남서쪽에 있는 고개, 초사동에서 송악면 동화리 넘어감.

·사래 【마을】 → 초사동.

·사하(沙河) 【마을】 → 초사동.

·서당 - 골 [서당동] 【마을】 초사동에 초사 초등학교가 있는 마을.

·서당 - 동(書堂洞) 【마을】 → 서당골.

·초사(草沙) 【마을】 → 초사동.

·흥기리 [興基里] 【마을】 갯티¹.

초사 1통 설에 의하면 마을 형태가 삼태기처럼 음목하고 아늑하여 꽃들이 다른 곳보다 먼저 일찍 핀다고 하여 개우내 갯티라고 전한다. 황산줄기 따라 뒤산을 넘어 송악면 동화리 마을이 연결되며 이 고개를 갯티고개라 부른다

초사 2통은 토질상태가 싸래기(모래논밭) 농토들이 많다고 하여 싸래기 마을 이라 전하고

있다.

- 전설

초사 2통 설에 의하면 고려 왕건 시대에 서산선사(대사) 명궁려을 찾기 위해서 마을 뒤 황산에 올라서 산맥을 찾았다고 전하고 있다.

- 전통놀이 및 집단행사

초사 1통 이 마을에서는 약 200년전부터 매년 음력 1월 15일에 마을전체와 이웃 마을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줄다리기를 행사를 하여 남자가 승리하면 벼농사가 풍년이고 여자가 이기면 보리농사가 풍년이라고 한다. 그리고 1973년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20평 규모의 마을회관을 건축하고 1996년도 마을회관 겸 노인들을 위한 경로당을 재 건축하였으며, 마을의 건강과 번영을 위해 힘쓰는 마을이다.

초사 2통은 마을 뒤 황산에 제당이 있으며 약 150년 전부터 매년 음력 1월3일에 마을 대표를 선출 입산하여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비는 축원제를 지낸다고 한다. 1972년에는 마을 안길과 마을회관을 건축하고 1988년 마을 공동으로 부엌과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개량하고 겨울철 노인과 주민들을 위하여□찜질방□을 설치하여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이용함으로써 이웃 사랑을 다짐하는 마을이다.